

전주매일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음 7월 7일) 제 187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농업, 미래산업의 새 심장

농식품부 'A Farm Show 일자리 박람회' 개최 청·장년층 농식품 분야 일자리·창업 정보 제공

능립축산식품부는 '2017 A Farm Show 능립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 를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 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했다.

농립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분산 개최되고 있는 귀농·귀촌 박람회, 농식품 일자리 페어 등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관, 지자체가 함께 농림식품 분야 취·창업 정보를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청·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박람회는 채용관, 창업관, 귀 농·귀촌관, 전시·체험관으로 구성, 진행되며, 농림식품산업 분야 100개 업체와 청·장년층 취·창업 및 귀 농·귀촌 희망자(5만 여명 예상)가 참여해 정보 교류의 장을 이뤘다.

취업 상담, 현장 온라인 원서접수 등을 하는 채용관에서는 박람회에 참여하는 농식품분야 민간기업 · 농협, 공공기관 약 100개 업체 3,000개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농협, 공공기관, 식품,외식, 축산, 농기자재, 산림, 유 통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업의 인 재상과 채용 요건에 대한 상담을 진 행하는 한편, 일부 기업은 현장에서 채용서류 접수를 받았다.

농협의 경우 NH농협은행, 농우바이오, 하나로유통 등 18개 계열사가 참여하여 약 200여명 규모의 신규 채용전형을 진행할 계획으로 현장에서는 채용설명회와 서류전형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고용노동부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부스를 설치하여 40대 이상 퇴직자와 퇴직예 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 지원 등의 종합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안내함으로써 일자리 박람회의 의미를 더 했다.

농산업분야는 청년창업의 성공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창업인큐베이팅 테마를 시작으로 아이디어 창업사례 테마, 귀농창업 성공사례 테마, 도시농업・한국식 수제맥주 등 최신 트렌드 창업 테마 등 다양한 창업유형별 풍성한 컨텐츠를 전시하고, 재미있는 체험 이벤트도 진행했다.

지역별 귀농.귀촌정책을 소개하는 지자체관과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돕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나누어 유영했다.

지자체관은 전국 7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귀농·귀촌 지원정책 및 상담을 진행하고, 지역 특산물을 전시하고 홍보했다.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성공 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자신의 귀농귀 촌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를 진단할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 형태의 귀농귀 촌 단계별 맞춤형 정보와 1:1 현장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각 스텝에는 단계별 상담사 외에 귀농닥터 등 전문가를 배치해, 귀농귀촌 기초상담에서부터 교육 지원, 정책자금 신청, 농지구입 및 작목 선택 등 원스톱(one-stop) 귀농귀촌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일자리 박람회를 찾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귀농귀촌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참 여를 위해 터치패드를 활용한 귀농귀 촌 자가진단 등 직접 체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체험관은 농정현안·사회적이슈 등을 반영하여 3개 키워드(4차 산업혁명, 사회적경제, 미래유망직업) 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4차 산업 혁명이 적용되는 미래 농 업의 모습을 생산, 유통, 소비 등 분 아별로 안내했다.

농업분야의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스마트한 기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고, 더불어 전문가 상담까지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 개념을 설명하고, 홍성 문당리마을의 50여개 협동조직,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및 도계마을 등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경 제의 의미와 성과 등을 쉽고 재미있 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미래유망직업관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유망일자리 우수사례 5개 분야 8종과, 농림업 직업정보 및 자격현황 을 소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다양한 농림식품산업 분야 일자리와 창업관련 정보 제공으로 농업 부문의 창업과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농식품분야 취·창업, 귀농·귀촌관련 정보와 기회를 더욱 확대해 우리나라의 청·장면 취·창업문제를 해결하는 토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늘 아래 아로니아 수확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25일 오후 김제시의 아로니아 농가에서 한 농부가 더위를 잊어가며 아로니아 수확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네번째 차 없는 거리 '에너지' 로 채우다

전주시, 객사 앞 충경로에서 다가교사거리까지 에너지의 날 맞아 다채로운 문화 · 체험행사 펼쳐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4번째 차 없는 거리가 에너지를 핵심 주제로

채워졌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관련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 지 절약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 가 됐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지난 26일 객사 앞 충경 로사거리에서 다가교사거리까지 충 경로의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사 람과 생태, 문화.예술로 채우는 제 4회 차 없는 사람의 거리 를 만들

이번 차 없는 사람의 거리는 제14 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불을 끄고 별을 켜다 평화로 만드는 반짝이 는 밤하늘'을 주제로 에너지 관련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주요 프로그램은 에너지의 날 기 념행사를 시작으로, 탈원전 관련 청소년 100여명이 참여하는 원탁토 론회, 우리 동네 기온측정 결과 발 표, 얼음조각 퍼포먼스, 에너지 절 약 다짐 서약 및 북극곰 인증샷, 환경을 소재로 한 그린 매직쇼, 지 구를 살리는 적정기술 전시회, 기 후변화 체험교육 등이다.

무건와 세점교육 등이다. 도로 위에서 여름철 무더위를 식 힐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큰 호응 을 얻었다.

사워터널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고 물병을 재활용한 물총놀이 등 물놀이 마당이 펼쳐졌으며, 얼음 위에서 오래 견디기, 수박 먹기, 커 플 음료수 마시지, 아이스버킷, 등 목, 얼음물 발 담그기, 물풍선 터트 리기 등 무더위 탈출 이벤트가 인 기를 끌었다.

차 없는 사람의 거리는 충경로 주변 상권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마지막 주 토요일에 운영하며,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던 행사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로 변경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로 위에서 펼쳐진 에너지 체험행사를 계기로 많은 시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에너지절약을 몸소 실천하고 온실가스 저감운동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시민들과 함께 대표적인 행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기자

與 "9월 정기국회, 민생예산·개혁입법 처리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예산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운영기조를 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오후 세종 조치원 소재 홍익대학교 국제연 수원에서 열린 2017 국회의원 워크 숍 에 참석해 "이번 정기국회 운영기 조인 민생제일, 적폐청산, 평화수호, 민주상생'을 통해 문재인-민주당 정 부의 100대 국정과제'입법을 실현 하고 '민생·민주·평화'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나라다운 나라의 기를을 갖추기 위한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을 되찾고 민생 최우선, 개혁 최 우선의 정기국회를 열어 나가겠다"며 "민생예산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 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 한 부문이 우리 사회 불공정과 불평 등 해소인 만큼 민생국회, 불공정과 불평등을 개선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워크숍이 무엇보다 의미가 큰 것은 당·정·청이함께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교류와 협력을 도모, 효율적 국정운영지원을 모색하는 공식 첫 자리인만큼 진지하게 경청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환상의 3각 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말했다.

